



# 급성 기관지염(Acute Bronchitis)

저자 최 선

가톨릭중앙의료원 연구윤리사무국 피험자보호팀장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 개요

기관지염은 지속기간에 따라 대략 10일 미만인 급성과 수 주간 지속되는 만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급성 기관지염의 주요 특성과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 키워드

급성 기관지염, 급성 기관지염의 치료

## 개요

기관지염(氣管支炎, bronchitis)은 폐의 기관지에 생기는 염증으로, 기관지 감염은 기관지 내부에 부종을 유발하며 두꺼운 점액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관지염이 발생하면 기도가 좁아져서 기침,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지염은 크게 급성 및 만성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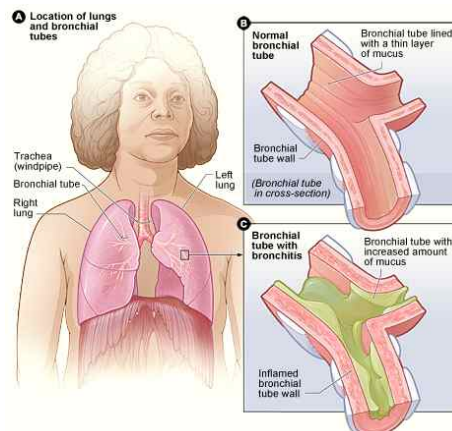


그림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Acute\\_bronchitis](https://en.wikipedia.org/wiki/Acute_bronchitis)

## 주요 증상

가장 일반적인 급성 기관지염의 증상은 다음과 같으며,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기관지염은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증상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호전되지만,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은 다른 모든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3주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일부 환자들은 더 장기적으로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기침이 지속되면 천식이나 폐렴과 같은 다른 호흡기 질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 급성 기관지염의 주요 증상

- 가슴의 울혈 또는 압박감
- 맑은 황색 또는 녹색 점액을 동반한 기침
- 호흡 곤란
- 천명음
- 인후통 또는 전신 통증
- 발열 또는 오한

## 원인 및 진단

### 1. 급성 기관지염의 위험 인자

급성 기관지염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흡연(간접흡연 포함)
- 면역체계 약화
- 위식도 역류
- 먼지 또는 화학 물질과 같은 자극 물질에 잦은 노출
- 독감, 폐렴 등에 대한 백신 접종 미실시
- 50세 이상의 연령.

### 2. 급성 기관지염의 원인

성인 급성 기관지염 환자 85~95%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다.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나 독감도 유발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세균 감염으로도 기관지염이 발생하기도 한

다.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기관지염은 기침이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공기 중에 퍼질 수 있고 전염성이 있다. 하지만 감염성 원인 이외에 기관지염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흡연, 먼지 및 기타 대기 오염에 대한 노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성이 없다.

### 1) 급성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기관지염은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에 특정한 “기관지염 바이러스”는 정해져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다수의 환자들이 원인 바이러스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가벼운 급성 기관지염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성 기관지염이 심한 증상을 보이는 시기가 일반 감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더 어렵기도 하다.

- Influenza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
- Parainfluenza
- RSV
- Rhinovirus
- Adenovirus
- Corona viruses

### 2) 급성 기관지염의 원인균

세균 감염은 급성 기관지염의 흔한 원인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균이 기관지염의 원인균으로 작용할 수 있다.

- Mycoplasma
- Streptococcus
- Bordetella
- Moraxella
- Haemophilus
- Chlamydia pneumoniae

## 2. 급성 기관지염의 진단

급성 기관지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 주 증상이 기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추가 감별진단 없이 병력이나 신체 증상에 따라 진단을 내리게 된다. 앞서 급성 기관지염이 바이러스 또는 드물게 세균감염에 의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나, 특정 원인균을 감별하는 진단검사는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천식, 폐렴, 세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COPD 등의 질환과 구분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거나 특정 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

- 객담 도말검사
- 인후부 채취 검체 배양 검사
- 인플루엔자 검사
- 흉부 X선 촬영
- 혈액가스 검사

## 예방 및 치료

### 1. 급성 기관지염의 예방

급성 기관지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면 급성 기관지염 발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충분한 수면
- 급성 기관지염 환자 주변에 있게 되는 경우 입, 코, 눈 등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세면도구 공유를 피할 것
- 규칙적으로 손 닦기 실시
- 균형 잡힌 식사 습관
- 독감, 폐렴 백신
- 자극요인인 흡연, 먼지, 연기, 기타 오염 물질에 노출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또한 노인이나 면역시스템이 약화된 상태인 경우엔 급성 기관지염이 급성 호흡기 부전이나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급성 기관지염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2. 급성 기관지염의 치료

증상이 매우 심각한 경우 외에는 급성 기관지염에 대해 특별한 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음과 같은 대증요법 시행으로 완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천명음이 있거나 호흡곤란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1) 일반적인 대증 요법

- Paracetamol(acetaminophen)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복용 : 발열 또는 인후통
- 습도 조절을 위한 가습기 사용: 객담을 묽게 하고 호흡 상태 개선
- 충분한 수분 섭취(생강차나 따뜻한 물 섭취 등): 객담 배출 용이, 생강차의 경우 항염 작용과 함께

기도 자극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음

- 꿀: 인후통 개선 및 전반적인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음
- 충분한 휴식과 수면

## 2) 기타 고려 사항

- 항생제의 사용: 대부분의 급성 기관지염은 그 원인이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이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항생제 사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다만 폐렴에 대한 고위험 환자일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하에 항생제가 처방되기도 한다.

-소아의 경우: 해열 진통 목적으로는 acetaminophen이 추천되며 6세 미만 소아에게 NSAIDs 사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 약사 Point

1. 기관지염은 지속기간 및 양상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다.
2. 급성 기관지염은 일반적으로 대증 치료를 실시하며 성인의 경우는 해열진통제 복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만, 천명음이나 심한 호흡곤란을 상담하는 경우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복약지도하여야 한다.
3. 급성 기관지염 치료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 참고문헌

1. Albert, RH,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bronchitis". American Family Physician, 82 (11): 1345 - 50.
2. [https://www.medicinenet.com/bronchitis\\_acute/article.htm](https://www.medicinenet.com/bronchitis_acute/article.htm)
3. <https://www.lung.org/lung-health-and-diseases/lung-disease-lookup/acute-bronchitis/diagnosing-and-treating-acute-bronchitis.html>
4. <https://www.healthline.com/health/bronchitis#bronchitis-vspneumonia>